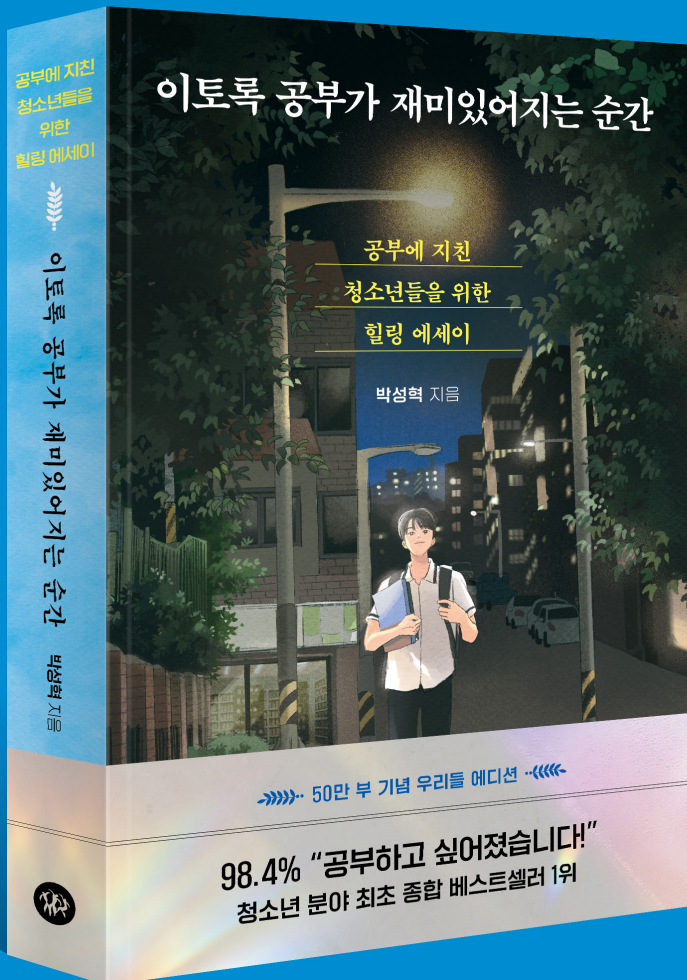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에세이

박성희 지음

주제어: 공부법, 동기부여, 마음가짐

“

이 길의 끝에 넌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게 될 거야.
그러니
너, 절대로 포기하지 마.

”

책 소개

이 책의 저자는 학창시절의 방황과 고난을 ‘똑같이’ 겪어 온 친근한 형, 오빠로서 공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10대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건넨다. 온갖 ‘잉여짓’을 일삼던 과거를 후회하며 눈물을 머금고 공부에 힘 쏟았던 이야기, 시골학교에서 벌레, 재래식 똥통과 사투하며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10대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딴 생각이 나서 집중하기 어려워요.’

‘이번 중간고사를 망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공부할 힘도 쭉 빠져요.’

‘도통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부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건’도, ‘머리’도, ‘학습법’도 아닌 바로 ‘마음가짐’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내 마음 다스리는 능력만 갖추면 언제든 오늘 하루를 ‘가장 공부하기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사방이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골마을에서 자라 그 혼한 학원 한 번 다녀본 적이 없지만 ‘마음가짐’ 하나로 서울대 법학과, 연세대 경영학과, 동신대 한의예과에 합격한 저자 자신의 이야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학습 목표

- ❶ 책을 읽으며 자신의 학습 경험을 살펴보고 반성할 수 있다.
- ❷ 공부하는 이유를 내면화하고 학습 태도를 바꿀 수 있다.
- 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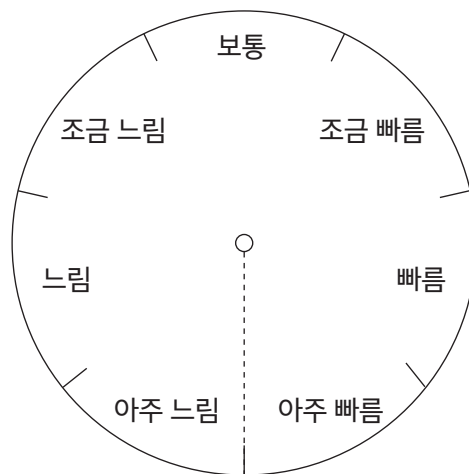
차시	활동내용
1	1. 나의 학습 속도계 그리기 2. 자신의 삶 돌아보고 반성하기 3. 작가의 메시지 이해하기
2	1. 꿈 설정하기 2. 목표 설정하고 실행하기 3.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3	1. 공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살펴보기 2. 공부하는 습관의 힘 알아보기 3. 고통 마주하는 법 알아보기 4. 공부할 때 발생하는 호르몬 살펴보기
4	1. 경쟁에 대해 생각해 보기 2. 나의 동기베이터 찾기 3. 몰입의 방법 알아보기 4. 명상하기
5	1. 좋은 습관 만드는 법 알아보기 2. 습관 실행해 보기 3. 스케줄러 작성법 배우기
6	1. 환경을 극복하는 법 알기 2. 선택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3. 우리 학교의 장점 소개하기
7	1. 공부할 수 있는 권리의 소중함 알기 2.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 보기 3. 부모님께 편지 쓰기
8	책 서평 쓰기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나는 알고 있어요.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늦어버렸다는 사실어요. 마음속에서 비쭉비쭉 고개를 드는 불길함 탓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주저해서,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어서요. 물론 들어봤자 내가 그 거짓말 믿지도 않을 테지만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늦었다는 것어요. 늦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늦었는지 늦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닐까요?”라는 질문 자체가 내가 늦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는 정말로 늦어버린 것, 맞습니다.(41쪽)

늦지 않았습시다. 절실한 사람은 결국 강해집시다. 마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시다. 가슴으로 뜨겁게 원하면 기필코 해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결코 늦지 않았습시다.(47쪽)

1) 나의 학습 속도계를 그려봅시다.



2) 왜 그렇게 그렸는지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지도 Tip 과거의 학습 경험, 학습 습관, 성적 등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보기>를 참고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창피하게도 저야말로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를 따져 한 사람의 직업을 결정한다면, 중학교 시절 저에게는 다섯 가지의 직업이 있었지요. 수업시간, 쉬는시간 할 것 없이 노는 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던 저는 ‘플레이어(Player)’였고, 하루를 통틀어 10시간도 넘게 아무 데서라도 꾸벅꾸벅 졸고 자기 일쑤였던 저는 잠에 취한 ‘슬리퍼(Sleeper)’였습니다. 매일 2시간씩은 텔레비전을 챙겨 보는 ‘시청자’였고, 두 눈이 빨갛게 되도록 온라인 게임에 새벽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게이머(Gamer)’였으며,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웹툰을 섭렵한 ‘웹툰 독자’였습니다.(48쪽)

지금까지 나는 () (하)는 () 였습니다.

3. 만약 작가가 영상에서 제시된 말(<보기> 참고)을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관련 영상** [오분순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https://youtu.be/LBctll6gh7Y>

<보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지도 Tip ‘늦지 않았단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찾고 그것과 관련지어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습니다.

1차시

1) 읽었던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찾아 써봅시다.

2) 친구들에게 1)을 소개하고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보기>와 영상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꿈을 생각해 봅시다.

<보기>

다 틀린 생각이었어요. '꿈≠직업'이라는 겁니다. '되고 싶은 직업'은 꿈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니까요. 꿈이란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곳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를 담아놓으면, 그것이 꿈입니다. 물론 거기에 직업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88쪽)

▶ **관련 영상**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박스'를 탈출하라 | 타일러 라쉬 방송인
<https://youtu.be/CYmyp77d1BU>

지도 Tip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꿈을 가지라는 영상 속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보기>와 영상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세워봅시다.

<보기>

목표와 꿈은 분명 다릅니다. 꿈이 '대장'이라면 목표는 '부하'예요. 꿈이 '어른이 되어 살고 싶은 내 모습'이라면, 목표는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든지 '나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공부할 것인가'처럼 나를 당장 움직이게 만드는 구호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꿈은 또렷하거나 희미할 때가 있어도 괜찮지만, 목표만큼은 언제나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 꿈이 희미하다 못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목표만큼은 단 한순간도 없어서는 곤란합니다. 목표가 듬성듬성 빠지다 보면 나중에 꿈이 또렷해졌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 **관련 영상** 결심하고 포기하는 생활이 반복된다면? |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https://youtu.be/yUt9ACfZz7o>

대장	나의 꿈	
----	------	--



부하	나의 목표	
----	-------	--

2) 1)을 일주일간 실행해보고 자신이 어떤 인간에 가까운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

내가 ‘목표형 인간’인가 ‘욕망형 인간’인가를 알고 싶다면,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내 태도를 보면 됩니다. 정할 때는 목표였지만, 지켜나가는 태도가 “되면 좋고, 아님 말고!”라면 나는 ‘욕망형 인간’입니다. ‘목표형 인간’은 지켜나가는 태도가 지독하고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도 Tip 목표를 정할 때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목표보다는 비교적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도하여 학생들 자신이 ‘목표형 인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3. 1년 전 내게 해주고 싶은 말(혹은 1년 후의 내가 지금의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을 써보고 쓰고 난 후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1년 전 너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대답이 없었어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덩치값도 못하고 대답 대신 난데없는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이 친구 표정을 살펴보다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나를 1년 전 너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 봐.”

말할 듯 안 할 듯 주저하다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더군요.

“공부해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내가 많이 후회하고 있다. 너, 자식아. 진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얼굴이 눈물콧물로 범벅이 되어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그 친구에게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았습니다.

“1년 후의 네가 지금의 널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

1년 전 _____ 에게

2차시

1) 읽었던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찾아 써봅시다.

2) 친구들에게 1)을 소개하고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공부를 통해 어떤 능력이 생길지 써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노트에 쪽 적어보는 거야. 공부를 통해 너에게 어떤 능력이 생길지. 너의 어떤 점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를 말아야. 공부라는 게, 따지고 보면 결국 어른 될 준비를 하는 거잖아.”

“!!!”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느끼는 제 자신에게는 마음에 쏙 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모자라고 부족해서 고쳐보고 싶은 점도 많았거든요. 그 길로 큼지막한 포스트잇을 하나 사서 밤이 늦도록 두서 없이 내키는 대로 쪽 적어놓고는 책상 앞에 ‘턱’하니 붙여 두었습니다. 의지력, 독심, 부지런함 등등 욕심껏 많이도 적어놓았어요. 적어놓은 것들만 다 갖춘다면 진짜 ‘괜찮은 놈’이 되겠더라고요. 적어놓기만 해도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그리고는 점수에 대한 집착을 슬며시 놓아보았습니다. 당장 그날 밤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었죠.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

1	똑똑해진다.
2	
3	
4	
5	
6	
7	
8	
9	
10	

2. <보기>와 영상에서 제시하는 '관절'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

<보기>

공부에는 '단단해지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나의 '에너지'와 '능력'의 한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쓰면 쓸수록 '에너지'가 늘어나고 '능력'이 붙어납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딱 한 달만 휘몰아치듯 공부해도, 한 달 전의 나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될 정도로요. 공부는 사람을 성장시키거든요. 여기에는 내 '에너지'와 '능력'도 포함돼요. 게다가 실제로 나는 '쓸데없이 걱정하던 것만큼' 나약하고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나는 강하고, 힘이 세고, 단단한 사람이에요. 단지 내가 그 '강하고, 힘이 세고, 단단한 나'에게 기회를 줬본 적 없을 뿐이지요. 마음 좀 붙여보려고 어찌다 밤늦게까지 공부한대도, 뛰어들었다가 좀 엎어지고 넘어진대도 나는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 **관련 영상** 달리기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 드립니다 | 다니엘 리버만 하버드 대학 교수
https://youtu.be/HCKLxJhT_94

지도 Tip 쓰면 쓸수록 단련되는 관절과 단단해지는 법칙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보기>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고생하는 과정 자체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내가 성장합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든 '진짜 이유'는 그동안 내뿜은 고통을 당당하게 마주하는 대신 피해 다녔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단련되고 훈련된 날개를 갖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고생이겠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이 고생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건 영리한 행동이 아니라 '멍청한 짓'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고생이라면, 기꺼이 좀 해보지 뭐!' 하는 태도야말로 똑똑한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인생에 발전이란 없을테니까요.(135쪽)

▶ **관련 영상**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https://youtu.be/vpTwo_3UwDM

4. 영상에서 소개하는 뇌과학적 관점으로 글쓰기가 <보기>의 밑줄 그은 부분과 같은 이유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보기>

제가 공부하면서 경험해본 가장 빛나는 순간은 서울대 법대 합격자 발표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은, 공부 잘된 날 하루를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가방을 싸던 순간이었습니다. 묵직한 확신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에 들려고 이부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다 합쳐봐야 100번이 좀 못 됐을 겁니다. 그렇대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들이 제가 살면서 경험해본 모든 순간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고요.

▶ **관련 영상**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노력의 비밀
https://youtu.be/1OfU_ddQZH0

3차시

1) 읽었던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찾아 써봅시다.

2) 친구들에게 1)을 소개하고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보기>와 영상 속 인물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그러나 경쟁은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나와의 경쟁'을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다 보면 자꾸만 내가 갖지 못한 '조건'을 탓하게 됩니다. 반면, 나와 경쟁하다 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나를 성장하게 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힐끔거리며 '도토리 키 재기'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상대로 나만의 싸움에 뛰어드세요.

▶ **관련 영상** 타인 페이스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달리기 하기
<https://youtu.be/ORSQULBZER8>

2. 여러분의 모티베이터를 찾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나 자신과 경쟁하는 동안, 나를 '적당히' 하도록 만드는 라이벌 대신 마음속에 '모티베이터(Motivator)'를 품어보세요. '모티베이터'란 자신의 삶을 통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에 열정을 꽃피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라이벌을 마음에 품으면 자꾸 그가 가진 '조건'이 보이지만, 모티베이터를 마음에 품으면 그들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마음을 열자고요. 그리고 인생 선배들로부터 크게 한 수 배워보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할 인생의 모티베이터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도 Tip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모티베이터를 예시로 소개하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활동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영상에서 소개하는 몰입의 3가지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 **관련 영상** 몰입을 위한 3가지 조건
<https://youtu.be/t5GXqgrwgEU>

조건 1	
조건 2	
조건 3	

4. 185~194쪽에서 소개한 명상의 방법을 실행해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을 찾고 그 방법으로 명상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방법1. 내 호흡을 알아차린다.
- 방법2. 스트레스에서 한 발짝 떨어져, 터트린다.
- 방법3. 머릿속을 흐르는 물에 씻는다고 상상한다.
- 방법4. 배 위에 지구를 올려놓았다고 상상한다.

4차시

1) 읽었던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찾아 써봅시다.

2) 친구들에게 1)을 소개하고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다음 영상을 보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관련 영상**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https://youtu.be/5O7M0SmiTzc>

▶ **관련 영상** 습관, 무엇보다 가치 있는 최고의 자산
<https://youtu.be/fAFrok6WVPg>

2. 200~228쪽에서 소개한 7가지 습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21일 동안 실천해 봅시다.

- 습관1. 수직으로 꼿꼿하게 앉는다.
- 습관2.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한다.
- 습관3. 겉모양이 아닌 알맹이에 집중한다.
- 습관4. 'VIP석'은 뺏아서라도 차지한다.
- 습관5. 좀처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 습관6. 쉬는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한다.
- 습관7. 정신상태를 정리정돈으로 증명한다.

(예) 나의 목표: 야간자기주도학습 시작 전에 책상 치우고 공부 시작하기

나의 목표:

	달성	미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	미달성
1일차			8일차			15일차		
2일차			9일차			16일차		
3일차			10일차			17일차		
4일차			11일차			18일차		
5일차			12일차			19일차		
6일차			13일차			20일차		
7일차			14일차			21일차		

지도 Tip ▶ 목표를 달성했으면 '달성'에, 달성하지 못했다면 '미달성'에 체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21일 후에 의미 있는 성취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도록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도록 유도해 주세요.

3. 여러분만의 스케줄펜을 정한 후 아래 스케줄러를 작성하고 계획 달성 여부를 체크해 봅시다.

나의 스케줄펜									
제조사									
모델명									
날짜									
공부한 시간									
계획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제목	내용	타임시트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오늘 하루에 대한 느낌	12						
			1						
			2						
			3						
			4						
			5						

지도 Tip 스터디플래너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본 영상(<https://youtu.be/d5P0aLYUrfo>)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1. <보기>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조금만 따져보아도 나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전혀 도움 되지 않아요. 오로지 '되게 할 방법'만 필요 합니다. 환경이 부실하고 주변이 안 받쳐주고 조건이 부족하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할 방법'만 찾아낸다면 나는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죠. 나를 일으켜 세워야죠. 불평 불만 따위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두고 볼 순 없잖아요.

▶ **관련 영상** NBA 가기 위해서 카메룬 훅발 코트에서 이 악물고 훈련하는 사람
<https://youtube.com/shorts/rqju2sMN8rM?feature=share>

2. <보기>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는 피에르 가르댕 삶과의 연관성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힘든 터널은 내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무조건 옳은 선택도, 무조건 잘못된 선택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내린 결정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내 선택을 옳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내 선택이 불만스럽다고 투덜 거릴 시간에 그 선택을 옳게 만들어야죠. 설령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 내렸을지라도 그때부터 내가 정성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옳은 선택으로 뒤바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 자체에 얽매어 지나치게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선택은 옳습니다. 내가 '옳은 노력'을 기울이기만 한다면요. 내가 품었던 목표를 잊지 않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 **관련 영상** 고민을 동전던지기로 결정하던 청년
<https://youtube.com/shorts/XOUHzLNFJsl?feature=share>

3. <보기>를 참고하여 우리 학교의 장점을 소개해 봅시다.

<보기>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곳에는 배울 점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까다로운 규칙에 시달리느라 귀찮았지만 그만큼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쓸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산속에 덩그러니 있는 학교였지만 그래서 마음 흐트러뜨릴 유혹거리로부터 나를 차단시킬 수 있었고, 푸세식 똥통 화장실을 써야 했지만 학교 곳곳에서 다람쥐, 토끼, 고라니, 꽃사슴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주칠 수 있는 ‘기운이 맑은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딱 믿어버리고 나니까 공부도 훨씬 잘되더라고요. 하나 마나 한 소리하면서 괜히 짜증 낼 때보다 공부할 마음 붙잡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지도 Tip 흔히 단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장점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6차시

1) 읽었던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찾아 써봅시다.

2) 친구들에게 1)을 소개하고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보기>와 영상에서 소개한 소피 제르맹의 삶을 보고 그녀는 누릴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

한순간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지금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단코 같을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타트라인에서 고작 1도만 다른 방향을 향하더라도, 한참동안 걷다 보면 길이 좌우로 완전히 갈리는 것처럼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이란 걸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특권을 멋지게 발휘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공부할 기회를 짓밟힌 사람들의 꿈까지 더불어 안고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니까요.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하찮게 여기는 순간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하찮음도 귀함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을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테니까요.

▶ **관련 영상** 소피 제르맹, 그녀의 잘못된 여자로 태어난 것 뿐이었습니다
<https://youtu.be/3OEe46UBAwo>

3. 다음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 **관련 영상**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미안해
<https://youtu.be/PRxPu9BnHtw>

3. 다음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써봅시다.

▶ **관련 영상** Psy 아버지 한글노래, 한글가사
<https://youtu.be/9p11W518Qw4>

_____ 계

_____ 윤길

7차시

1) 읽었던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찾아 써봅시다.

2) 친구들에게 1)을 소개하고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5~7쪽에 제시된 서평을 읽어봅시다.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 방학에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1·2학년 공부는 박성혁 작가님이 말했던 ‘잉여짓’으로 망쳤던 것 같아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책상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자꾸 딴생각이 들고 공부는 하기 싫어서 시간만 때웠습니다.

➡ 공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서점에서 이 책을 집어 든 그날도 ‘그냥 책이나 많이 읽어서 국어 공부라도 잘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과는 정반대인 책 제목에 궁금증을 가지고 독서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다 읽어버렸습니다.

➡ 책을 읽게 된 동기

박성혁 작가님이 책에 써준 한 문장 한 문장이 모두 와닿았습니다. 힘내라고, 나도 그랬으니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라고 계속 응원해 주셔서 공부할 의욕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라는 것도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그날, 처음으로 제 ‘공부의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 책을 통해 알게 된 점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기까지는 했는데 어떤 과목부터 시작해야 할지, 문제부터 풀어야 할지, 교과서부터 읽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대로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손에 잡히는 책부터 펼쳐서 계속 읽자!’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30분, 1시간 집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7시간, 1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 책을 읽고 난 후 변화된 점

박성혁 작가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작가님, 저는 작가님 덕분에 처음으로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작가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 작가에게 말하고 싶은 점

2. 아래 표를 작성해 봅시다.

1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2	이 책에 대한 첫 인상	
3	공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4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점	
5	책을 읽고 난 후 변화된 점	
6	작가에게 말하고 싶은 점	
7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3. 작성한 표의 1~7로 한 편의 글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적절한 순서를 정해 봅시다

() → () → () → () → () → () → ()

지도 Tip 활동 2에서 작성한 문항 중 글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내용을 추가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4. 활동2와 3을 참고하여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작성해 봅시다.

서평제목 :

이름 :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지도 Tip 완성된 글을 친구들과 돌려 읽으면서 감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으로 연계해도 좋습니다.